

평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수해 피해 농가 복구 봉사활동

강동휘 기자 yulnyo@kwnews.co.kr

입력 : 2026-07-15 00:05:00 수정 : 2026-07-15 00:06:21 지면 : 2026-07-15 (15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순철)은 14일 희망새미봉사단과 함께 수해 피해를 입은 평창읍 후평리 농경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평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14일 수해 피해를 입은 평창읍 후평리 농경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최근 집중호우로 후평리 일대 농경지 제방과 논두렁 일부가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됨에 따라 추기우로 인한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 농가의 영농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단 임직원과 희망새미봉사단원 등 16명은 안전교육을 받은 뒤 유실된 농경지 제방 2곳을 응급 복구해 농경지에 유입된 토사와 부유물을 제거하고 유실 구간에 마대를 쌓는 한편, 복구용 흙을 운반해 되메우기 작업 진행했다. 작업 후에는 주변 폐기물을 수거하고 현장을 정리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순철)은 14일 희망새미봉사단과 함께 수해 피해를 입은 평창읍 후평리 농경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충분한 수분과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현장 책임자의 통제 아래 작업을 진행했다. 또 후평리 마을 관계자와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피해 농가에 필요한 복구작업을 지원했다.

최순철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회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신속히 힘을 보태고, 군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순철)은 14일 희망새미봉사단과 함께 수해 피해를 입은 평창읍 후평리 농경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 추천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